

‘다스 의혹’ 이명박, 법정구속

2심서 징역 17년 선고
벌금은 130억원 유지
지난해 3월 보석 이후
1년만에 재수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에는 약 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 3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렸다.

/뉴시스

장경호 익산시의원, 민주 입당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주에 심사를 거쳐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경호 의원은 십 수년간 나후된 구도심발전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며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평화당으로 출마하여 2표 차의 신승을 거두고 당선이 되었으나, 지난해 민주평화당의 분당과 내홍 등으로 거취를 고민하다 지난 1월 탈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비생산적인 국회 법안심사 방법 개선을”

이용호 의원, 2월 국회 민생법안 신속 통과 촉구

이용호 국회의원은 19일 성명서에서 비생산적인 국회법안심사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어,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극소수 미대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공의대법’을

반대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국회법 제95조(안건심사)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나 의사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어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이번 2월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전북 2곳 단수공천

김제 · 부안 이원택, 정읍 · 고창 윤준병
이개호 의원, 현역 의원 중 첫 단수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북 김제 · 부안과 정읍 · 고창 등 2개 지역구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원택 예비

후보와 윤준병 예비후보는 다른 예비후보자들과의 경선을 치루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군의 이개호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44곳에 대한 심사 후 전략공천 지역 2곳, 단수공천 지역 2곳, 경선 실시 18곳을 발표했다. 16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원외 인사로는 박성현(부산 동래구), 강운경(부산 수영구), 김대진(대구 달서병), 윤준병(전북 정읍 · 고창), 이원택(전북 김제 · 부안), 허대만(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양문석(경남 통영 · 고성)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선 지역으로 선정된 18곳 중 현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6곳이다.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의원은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마포갑 노



〈김제 · 부안〉
이원택 예비후보



〈정읍 · 고창〉
윤준병 예비후보

웅래 의원도 김민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과 맞붙게 됐다.

서울 동작갑의 김병기 의원은 김성진 · 이재무 예비후보와

경선 예정이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도 백재욱 예비후보와 겨룬다.

비례대표인 이재정(안양 동안), 송옥주(경기 화성갑), 정춘숙(경기 용인병) 의원도 각각 경선이 결정됐다.

원외 지역인 서울 강북갑, 광주 동 · 남갑, 광주 광산갑, 광주 광산 을, 경기 의정부 을, 경기 평택갑, 경기 동두천 · 연천, 충북 청주상당, 충남 홍성 · 예산,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경남 창원 · 의창 등 11곳도 경선 실시가 확정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광진구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시정에 이탄희 전 관사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 추가로 발표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 논의해 경기 고양시을에 대해선 전략선거구 지정을 의결했지만 서울 중구 · 성동구을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청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되돌려 보냈다. /특별취재반

4 · 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임정엽 “닥터카 도입,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할 것”

임정엽 완주진

안무주장수 국회

의원 예비후보가

‘닥터카’ 도입 등

을 통해 지역 응

급의료체계를 강

화한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19일 장날을 맞이

한 완주 고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진장 등 동

부권은 산간지역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그는 “문제는 각 소방서에 배치된 응급차량에는 외상 등 중증환자를 초기 진료 할 수 있는 전문의 등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골든타임 내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카를 도입해 이들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달리는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카는 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구급차에 타고 출동해 전문 의료진이 최적화된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